

보성군,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지역 축제 글로벌화”

말레이시아 사바주와 업무협약
다향-카마탄축제 간 상호 참가
양측 문화관광 산업 성장 기반
“국제 문화관광 교류의 새 지평”

전라남도 보성군이 말레이시아 사바주 정부와 손잡고 국제적 축제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말레이시아 사바주 정부와 문화관광 분야 상호 협력과 지역축제의 글로벌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초 말레이시아 사바주 정부와 관광청, 전통예술 공연단이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를 공식 방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성군의 대표 축제인 보성다향대축제와 사바주의 카마탄축제 간의 상호 참가, 콘텐츠 교류, 공동 홍보 및 실무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보성군은 이번 MOU 체결 및 축제 교류를 통해 자치단체 간 교류를 넘어 지역

축제 콘텐츠의 국제화를 위한 전략적 플랫폼을 확보했다. 군은 양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결합한 콘텐츠 개발과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 글로벌 관광객 유치 확대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문화 공연 교류 행사는 양측이 전통문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보성군립국악단’은 장구, 가야금 등 한국 전통악기로 구성된 정통 국악 공연을 선보이며 카마탄축제 현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 보성군 홍보 부스를 통해 보성 관광 콘텐츠 소개, 한국 전통 소품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며 보성군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보성군은 이번 행사를 사바주와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출발점이자, 보성군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문화도시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사바주 관광·문화·환경부의 메리 이시도어 말랑킹(Mary Isidore



보성군이 말레이시아 사바주와 국제 축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성군립국악단이 카마탄축제 현지 관객들 앞에서 국악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보성군 제공

Malangking) 제1차관은 “보성군과의 협력은 사바주의 국제 관광 전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교류는 양 지역 간 문화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형빈 보성군 부군수는 “이번 협약은 보성군이 보유한 문화적 자산과 자연 자

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제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자,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양중수 기자

조부모 교육 ‘꿈꾸는 할머니비’ 광양시가족센터

광양시가족센터가 이달부터 조부모 및 예비조부모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꿈꾸는 할머니비’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애전환기를 겪는 조부모의 심리적 적응과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서·관계·생활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이 변화된 육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육 과정에서도 자기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총 2회기로 운영할 방침이다.

1회기 교육은 오는 11일 ‘나를 다시 쓰는 시간’을 주제로 진행되며, 2회기 교육은 오는 16일 ‘나를 향기로 돌보는 시간’을 주제로 탈모 예방 스프레이 및 숙면 유도 아로마 스프레이 만들기 실습을 통해 자기돌봄과 정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꿈꾸는 할머니비’ 프로그램 관련 문의 및 참여 신청은 광양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061-797-6890)를 통해 가능하다.

광양=안영준 기자

7~8일, ‘디즈니 싱어롱’ 개최 순천시 남문터 광장 야외무대

전라남도 순천시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원즈(Wants)순천’ 행사의 일환으로 남문터 광장 야외무대에서 ‘디즈니 싱어롱’을 진행한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디즈니 싱어롱’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명곡을 함께 따라 부르며 즐기는 참여형 교육 이벤트로, 문화예술회관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7일, 8일 각 1회씩 진행된다.

7일은 오후 7시 ‘겨울왕국’ 메인 테마곡에 맞춰 약 30분간 진행되고, 8일은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남문터 광장 방문객들과 ‘모아나’를 관람하며 메인 테마곡을 따라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인 남문터 광장은 이번 ‘원즈 순천’ 행사 기간동안 순천 대표 캐릭터와 콘텐츠로 꾸며져 도심 속에서 즐기는 이색 콘텐츠 축제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고흥군 ‘마리안느·마가렛 청소년 봉사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

전라남도 고흥군은 지난달 26일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리안느·마가렛 청소년 봉사학교’가 총 8기에 걸쳐 운영된다고 2일 밝혔다.

고흥군이 2022년부터 운영해 온 봉사학교에서는 소록도에서 43년간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두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청소년에게 전파하고 있다.

올해는 지리적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

고 더 많은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1박2일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전국 9개 학교에서 총 433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이야기로 듣는 마리안느·마가렛 자원봉사, 청소년 마음잇기, 소록도 탐방을 통한 마리안느·마가렛 흔적 느끼기,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고흥=심정우 기자

광양시, 도심 속 캠핑장 ‘구봉산 숲속야영장’ 문 연다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내 첫 시설 7일 개장식 개최… 30일 정식 개장

전라남도 광양시는 오는 7일 오후 7시 광양시 황길동 산45-11번지 일원에서 ‘구봉산 숲속야영장’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장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권향엽 국회의원,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골약동 주민과 캠핑 참가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개장 퍼포먼스, 기념 촬영, 캠핑 체험 등의 순

으로 진행된다.

구봉산 숲속야영장은 2021년 산림청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된 시설로, 어린이테마파크 내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목표로 국·도비 19억 원을 포함해 총 2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야영데크 28면과 숲속의집 5동이 마련돼 총 33면에서 동시 야영이 가능하며, 화장실, 샤워장, 취사대 등 다양한 편의 시설도 함께 갖췄다.

개장식 이후에는 주말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30일 정식 개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 요금은 야영장 규격에 따라 2만 5000원에서 5만원까지이며, 예약은 6월 중순부터 인터넷 예약사이트 ‘캠핏’(www.camfit.co.kr)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구봉산 숲속야영장이 2027년 개관 예정인 공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 상상놀이터와 함께 구봉산을 중심으로 한 시민 휴식공간이자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보성군 ‘친환경 농업 멘토링’ 추진 유기농 명인이 재배 기술 전수

보성군이 친환경 농업 확산과 신규 농업인 유입을 위해 ‘2025년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12개 시군이 참여하며, 총 18명의 유기농 명인이 멘토로 활동해 친환경 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에게 전문 재배 기술을 전수한다.

보성군에서는 전양순, 조효익, 안명순, 최창돈 등 유기농업 분야 명인 4명이 멘토로 참여하며, 멘토링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모집해 1:1 맞춤형 기술 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가능하다. 멘토들은 재배 지도, 상담, 기술 전수, 교육 등을 통해 참여 농업인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현장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협약서 기반 고정(일정) 방식에서 벗어나, 멘토와 멘티 간 자율적 일정 조정이 가능한 단기·집중형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장 중심의 실습과 교육이 강화되며, 참여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사업이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친환경 농업인 간의 실질적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 유입과 인증 면적 확대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양중수 기자

호남권 최대 규모 드론쇼 개최 고흥군, 7일 오후 9시 녹동항서

전라남도 고흥군은 오는 7일 오후 9시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2025대 드론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녹동항과 소록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드론 퍼포먼스와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가 어우러진 야간 공연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 2025대의 드론이 우주, 드론-UAM, 스마트팜 등 고흥의 3대 미래 비전과 고흥~광주 고속도로, 고속철도, 고흥~봉래 간 도로 확포장 등 3대 교통인프라를 형상화해 입체적으로 연출될 예정이다.

이번 드론쇼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드론쇼로, 대규모 드론 운용 기술을 활용한 연출이 돋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진행되는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는 레이저와 불꽃 효과를 통해 야간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드론과 불꽃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고흥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드론쇼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오후 8시부터는 버스킹 공연이 바다정원 일대를 감미로운 음악으로 채울 예정이며, 장어요리와 각종 회 등 신선한 해산물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고흥 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농수산 직거래장터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드론쇼는 강우나 강풍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고흥군은 방문 전 녹동항드론쇼 홈페이지(http://nokdongdrone.co.kr)나 고흥군 대표 누리집을 통해 사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흥=심정우 기자